

연변팀, 남경 원정서 값진 무승부

- 조반니·포부스 결장, 거친 몸싸움 속 1점 수확



3월 21일 19시 30분, 연변룡정 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강소성 오태산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6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남경도시팀(이하 '남경팀')과 0대0으로 비기며 힘든 원정경기에서 값진 1점을 챙겼다.

연변팀의 이기형 감독은 이날 4-4-2 전형을 내세웠다. 골문은 구가호가 지키고 신예 손석봉과 지난 경기에서 두꼐를 터뜨린 황진비, 그리고 왕자호로 공격진을 구성했다. 포부스는 이날 벤치에 자리했고 지난

경기에서 뼈저리게 기록했던 조반니는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경기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맞서 남경팀은 3-4-3 전술로 나섰다. 새로 영입한 브라질 용병 호베르투, 조제 비토르, 제롤 음베켈리 등 3명을 선발로 내세우며 지난 시즌 연변 홈장에서 겪었던 대패의 아픔을 씻으려 했다.

전반 22분경, 남경팀 용병 제롤 음베켈리의 먼거리 슈팅이 연변팀 골문을 향해 날아갔지만 구가호가 몸을 날려 쳐내며 위기를 넘겼다.

▲ 이날 연변팀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조반니와 포부스가 결장하고 누네스도 전반전에 부상으로 교체되는 등 도밍구스 1명 용병 전술로 상대의 3용병 진영과 맞서 싸웠다.

남경팀은 연변팀의 반격에 철저히 대비한 모습이었다. 연변팀이 공격을 전개하면 남경팀 선수들이 빠르게 자기 진영으로 내려와 수비를 펼치며 반격의 발미를 주지 않았다. 여기에 조반니와 포부스 등 주전 선수들이 빠지면서 연변 특유의 역습은 더구나 쉽게 풀리지 않았다.

전반 43분, 연변팀이 교체 카드를 꺼냈다. 수비수 누네스가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서 호재겸교 교체되었다.

전반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고 두 팀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전, 남경팀은 선수 교체 없이 경기를 이어갔다.

68분경, 그때까지 뚜렷한 공격 기회를 찾지 못하던 남경팀이 중원 부근에서 시원한 중거리 슈트를 시도했지만 골문을 벗어났다.

이날 경기 내내 남경팀 선수들의

— [감독초대석] —
“원정팬 응원 덕분에 값진 승점… 휴식기 동안 잘 정비하겠다”



경기후 이기형 감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팀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원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점 1점을 챙긴 점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경기 상황에 대해 총평을 내놓고 나서 “팀에 부상 선수도 있고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데 다음 경기까지 남은 2주간의 휴식 기간 동안 잘 정비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도 많은 팬들이 원정까지 와서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덕분에 선수들이 힘을 낸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팬들이 와서 선수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길 바란다.”고 원정을 함께 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 김가혜기자

거친 몸싸움이 점점 도를 더해갔지만 심판은 끝내 경고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76분경, 두 팀은 나란히 두명씩 교체하며 남은 시간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후반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졌지만 두 팀 모두 골문을 열지 못했다. 결국 경기는 0대0으로 종료되었다.

원정에서 무승부로 값진 1점을 챙긴 연변팀은 오는 4월 4일 16시, 심수청년인팀과 제3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르게 된다.

/ 글 오건기자 / 사진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제3라운드 미리 보기]

‘험난’했던 남경 원정, 2주 쉬고 이번엔 심수청년

연변팀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록 이제 겨우 2라운드를 마친 상황이지만 시즌 초반 예정된 4라운드 원정경기의 절반을 무사히 마치고 2주간의 휴식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연변팀은 여러 악재 속에서도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원정이란 게 원래 쉽지 않은데 제2라운드 대남경도시팀전은 ‘험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기전 대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조반니와 포부스가 ‘피동적인 사정’으로 모두 선발에서 제외된 가운데 연변팀은 새롭게 선발 명단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도밍구스 1용병 체제에 손석봉을 원톱으로 내세운 연변팀에 반대 상대는 3명의 용병을 총출동시켰다.

3명의 용병이 올 시즌에 새로 영입된 지금의 남경도시팀은 지난 시즌 연변팀에 ‘6대1’로 당하던 멤버 구성과는 크게 다르다고는 하나 그 아픔이 한없이 깊었는지 대패를 설욕하려는 듯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거친 몸싸움을 불사했다. 특히 상대 선수들의 점점 거칠어지는 몸싸움에도 심판의 경고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이는 연변팀 선수들의 경기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그야말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전반 43분에 연변팀의 수비수 누네스가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는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변팀은 조반니와 포부스 등 주축 선수들의 부재와 원정경기라는 불리한 속에서 무실점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무엇보다 수비 조직력과 구가호의 선방, 그리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선수들의 인내가 빛낸 결과이다. 이번 경기에서

원은 수비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변팀은 오는 4월 4일 원정에서 심수청년인팀과 제3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심수청년인팀과의 지난 시즌 대전 전적을 살펴보면 연변팀은 제6라운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제21라운드 때는 원정에서 1대2로 경기를 내졌다. 사실상 두 팀은 1승을 주고받은 셈이다.

그러나 과거 전적을 그저 참고 사항일 뿐이다. 심수청년인도 올 시즌 새 용병 3명을 영입하며 팀 재건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아직 조직력이 완전히 자리잡지는 못한 모양새이다. 제1라운드에서 심서련함에 1대0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제2라운드에서는 무석오구팀에 0대4로 대패했다. 무석오구는 원 연변팀 감독을 지냈던 김봉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팀인데 심수청년인은 이날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허점이 보였고 공격력에서도 약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연변팀으로서도 이러한 불안정한 수비 조직을 상대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2주간의 휴식기를 통해 체력적으로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만큼 부상으로 리타한 누네스의 회복 상황과 함께 조반니, 포부스 등 주축 공격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공격진의 활로를 찾는다면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상대이다.

다만 심수청년인도 홈에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하니 연변팀으로서도 방심 없이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4라운드 원정의 중간 지점에서 맞은 이번 경기, 연변팀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 한번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가혜기자

[포토 포커스]

제2의 홈장 ‘장저후’



험난한 원정길에서도 연변팀은 든든한 응원단 덕분에 힘을 냈다. 특히 이날(3월 21일) 경기장에 ‘장저후’ 축구팬들을 위주로 한 원정팬들이 천명 넘게 모여 팀의 ‘12번째 선수’ 역할을 자처했다. 열띤 성원 속에 이들은 이번 역시 “장저후도 당신의 홈장”이라는 구

호를 몸소 증명하며 팀과 함께 값진 무승부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경기후 연변팀의 코치진과 선수들이 원정경기장을 합성으로 가득 메운 ‘12번째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남기는 장면이다.

/ 글 김가혜기자 / 사진 연변룡정축구구락부

배구로 잇는 정, 장춘 - 오상 조선족배구협회 친선교류 모임



▲ 배구경기 시작전 장춘과 오상 두 지역 조선족배구팀은 기념사진을 남겼다.

21일, 장춘시체육원조선족소학교 체육관에서 열정 넘치는 배구 축제가 열렸다. 장춘룡정배구협회(이하 ‘장춘배구협회’)와 흥룡강성 오상시조선족배구협회(이하 ‘오상시배구협회’) 회원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춘-오상 조선족배구협회 제2차 친선교류 모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22일 장춘배구협회 일행이 오상을 방문해 즐거운 경기를 펼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오상시배구협회의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는 장춘배

구협회는 4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만남을 더욱 뜻깊게 여겼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환영식은 두 팀 회원들의 정겨운 인사 속에서 막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사인박에 이름을 적으며 소중한 순간을 남겼고 대형 화면에는 지난 오상 방문 당시의 추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회자의 개회사에 이어 장춘배구협회 김영철 단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오상을 방문

했을 때 받았던 따뜻한 환대를 잊을 수 없다.”며 “오늘 다시 배구로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 자리가 우리 민족의 정을 나누고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는 우리 협회 김영철 팀장을 비롯한 새 관리팀이 구성된 후 처음 맡은 대의 행사인데 모두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상시배구협회 대표의 답사가 있었고 두 팀은 서로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졌다.

환영식은 게임과 노래로 분위기가 한바탕 들끓었다. 간단한 게임을 하며 서로 손잡고 웃다 보니 어느새 어색함이 사라졌고 장춘배구협회의 독창 〈달타령〉과 오상시배구협회의 무용은 박수갈채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촬영후 환영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12시 40분부터 본격적인 배구교류전에 돌입했다.

회원들은 경기 내내 서로를 향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득점에 연연하지 않고 매 순간 배구 자체를 즐겼다. 상대의 강한 스파이크가 들어와도 “좋아!”, “잘했어!”라며 진심어린 박수를 보냈고 서로의 실수에는 어깨를 두드리며 웃어넘겼다. 한 팀이 멋진 수비를 펼치면 상대팀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오며 체육관의 웃음소리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중 연속 득점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한 선수가 〈풍악을 울려라〉를 흥겹게 부르자 순간 다른 선수들도 공을 내려놓고 박수를 치며 신나게 어깨를 들썩였다. 상대팀 선수들까지 덩달아 리듬을 타며 함께 웃음꽃을 피웠다.

오상시배구협회 관계자는 “장춘형제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감동이다. 작년에 이어 오늘 여기에서도 조금도 어색함 없이 즐겁게 경기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 오건기자

연변 출신 태지은, 전국 경기서 우승

2025-2026 시즌 전국 스피드스케이팅 챔피언 경기가 지난 19일 국가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막을 올렸다. 류한빈과 태지은이 각각 남자 5,000미터와 여자 3,000미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 3월 1일 독일 인셀에서 막을 내린 2026년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청년선수권대회에서 중국국가대표로 출전한 태지은선수가 여자 단체출발 및 여자 단체추월 두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 끝에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 중합



2026赛季全国速度滑